

# 빠른 출고에 할인까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매력 철철

계약 후 한달 내 차량 인도 가능  
콤보 할부시 100만원 현금할인  
슈퍼 초장기 72개월 할부혜택도

한국지엠 쉐보레가 9월 트레일블레이저 판매량 확대를 위해 역대급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쉐보레는 9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쉐보레는 자사의 대표 인기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의 구매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100만원의 현금 할인과 함께 6.0%이율의 72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특히 현금 할인은 지난 달 대비 20만원 지원금액이 늘어나 연중 최고 할인이 적용된다.

초저리 할부 프로그램도 선택 가능하다. 이 경우 2.9%이율로 36개월 초저리 할부로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4.9% 슈퍼 초장기 7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 시 트레일블레이저 프리미어 트림 기준으로 월 할부금 27만9000원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구매 시 슬림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면 20만원의 추가 현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쉐보레는 수해 피해 고객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정된 피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게 50만원의 특별 지원 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택을 제공한다. 또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등 현재의 열악한 시장상황 가운데 제공되는 올해 가장 큰 현금 혜택으로, 쉐보레가 반도체 부족 상황 속에서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 판매 물량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는 계약 후 한달 이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부족난으로 1년 이상 출고 대기가 흔해진 현 상황에서 소비자엔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세 가지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모델이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트레일블레이저 기본

형 모델은 물론, 스포티함이 강조된 RS 모델,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ACTIV 모델 등 총 세 가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일 디자인으로만 출시되는 일반적인 자동차 업계의 통념을 과감히 뒤집는 시도로 평가됐다.

기존 소형 SUV를 압도하는 준중형급 차체도 트레일블레이저만의 특징이다. 트레일블레이저가 기존 소형 SUV 소비자들이 좁은 공간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것에 착안해, 설계 단계부터 공간에 대한 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SUV로 만들어졌다.

실제 트레일블레이저는 최대 전장 4425mm (ACTIV 및 RS 모델 기준)을 갖춰 기존 소형 SUV 대비 2~30cm가량 긴 차체를 갖췄다. 때문에 소비자는 준중형SUV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어 차박 캠핑과 레저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탁월한 퍼포먼스도 인기 요인이다.

E-Turbo로 불리는 엔진 GM의 최신 엔진 라인업을 적용해 성능과 효율,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1.35리터 E-Turbo엔진은라이트사이징터보기술을 통해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24.1kg.m를 발휘, 2리터 자연흡기 엔진에 버금가는 출력과 이를 뛰어넘는 우수한 토크 성능이 특징이다. GM의 첨단 라이트사이징 기술 적용을 통해 친환경성까지 챙긴 트레일블레이저는 제3종 저공해 차량 인증까지 획득했다. 이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 오너는 혼잡통행료와 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통 SUV를 표방한 모델답게 사륜구동시스템도 갖췄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처블 AWD(Switchable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주행 중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FWD(전륜구동) 모드와 AWD(사륜구동)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심 주행에서는 FWD모드로 효율성을,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AWD모드를 활용해 주행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 옵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USB 케이블 없이도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이 밖에 스카이 풀 파노라마 선루프,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래스, 보타이 프로젝트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등 경쟁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 옵션들이 적용돼 프리미엄 소형 SUV로 포지셔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개소세 인하를 적용한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프리미어 2539만원, 액티브 2696만원, RS 27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LG엔솔, 상반기 배터리 판매 '세계 2위'

국내 배터리3사 매출 합계 15조  
삼성SDI, 판매량 비 매출액 높아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에서 중국계 기업이 1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 합계가 15조원을 기록해 눈에 띄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동기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18조원이 넘는 압도적인 매출액을 올렸다. CATL의 전 세계 판매

점유율은 39%에 이른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R리서치는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BEV+PHEV) 판매량은 435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올 상반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팩 기준) 매출 총액은 427억3000만 달러(약 58조8000억원)였다.

2위와 3위는 각각 LG에너지솔루션과 중국의 비야디(BYD)가 차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BYD의 판매 점유율은 각각 14%, 11%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계 파나소닉, SK온, 삼

성SDI(판매 순위 기준)가 그 뒤를 이었다.

삼성SDI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비중이 높아 배터리 판매량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팩 판매가의 경우, 삼성SDI는 kWh(킬로와트시)당 183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귀쉬안(Guoxuan)과 이브(EVE)가 각각 169달러, 168달러로 다음으로 높았다. LG에너지솔루션 판매가는 150달러, CATL 125달러, SK온 119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허정문 기자 zelkova@

## 한화테크윈, 美 국제 보안 전시회 참가

고객 중심 AI 솔루션 선보여

글로벌 영상솔루션 기업 한화테크윈은 이달 12~4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국제 보안 전시회 'GSX 2022'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GSX는 글로벌 최대 보안관리 전문가 협회인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의 역사를 이어온 전시회다. 민간 및 공공 부문 전문가와 업계 최고 솔루션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

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테크윈은 인공지능(AI) 카메라와 AI 영상분석 기반 솔루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한화테크윈의 AI 카메라는 영상에서 객체의 특징을 분석해 사람의 성별, 연령대, 착용한 상·하의 색상이나 차량의 차종, 색상, 번호판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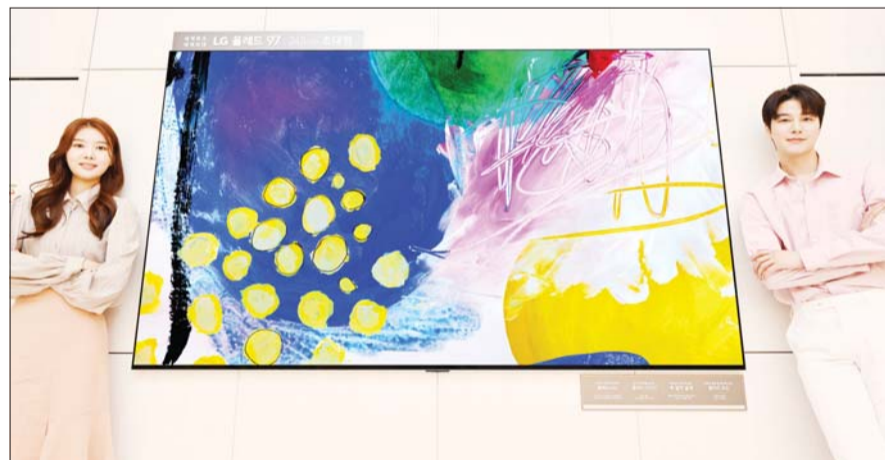
교통 분야 특화 솔루션인 '와이즈넷 로드 AI'는 차량 종류, 색상, 번호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모델명까지 분석할 수 있다.

고객이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찍힌 위치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고객 요구사항은 AI 및 클라우드,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몇 년 새 더 빠르고 세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혁신 기술과 산업 솔루션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 사용 환경과 경험 등을 지속 공유해 글로벌 영상보안 기업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는 세계 최대 올레드 TV인 97형 올레드 예보 갤러리 에디션 출시한다.

/LG전자

## '압도적 크기'... LG전자, 97형 올레드TV

'갤러리 에디션' 출하가 3990만원

LG 올레드 TV가 벽을 더 가득 채울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오는 21일 세계 최대 올레드 TV인 97형 올레드 예보 갤러리 에디션을 출시한다. 앞서 14일부터 전국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 제품은 4K 해상도에 그간 축적해 온 올레드 화질/음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조합했다. 영상 속 얼굴이나 신체, 사물, 글씨, 배경 등을 구분해 입체감을 높이고 2채널 음원을 가상의 7.1.2채널 입체음향으로 변환해 초대형 화면에 걸맞은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돌비비전 IQ와 돌비애틀모스도 모두 지원한다.

갤러리 디자인은 TV 전체를 벽에 완

전히 밀착해 고급스러움 뿐 아니라 화면 몰입감도 높여준다.

편의기능도 대거 탑재했다.▲스마트폰을 인공지능 리모컨에 갖다 대 화면을 연동하는 NFC ▲리모컨뿐 아니라 TV 본체에서 음성인식이 가능한 다이렉트 음성인식 ▲화면을 분할해 TV 시청과 인터넷 검색을 동시에 하거나 게임을 즐기며 게임 영상을 보는 멀티뷰 등은 시청 거리가 먼 초대형 TV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준다.

LG 올레드 TV는 97형을 추가하면서 42형부터 8개 크기를 아우르는 업계 최다 라인업을 갖췄다. 책상위부터 벽면까지 모든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출하가는 3990만원이다. 출시 기념으로 구매시 200만원 상당 캐시백 혜택과 함께, 20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LG 스탠바이미도 추가 증정한다.

/김재용 기자 juk@